

야구 지고 축구도 지고 ... 5월 광주 팬들은 '허탈'

KIA, 삼성과 6차전 5-7 역전패
꼴찌 롯데에 한 경기차 쫓겨



악몽 같던 주말 연패에서 탈출한 '호랑이 군단'이 기세를 잇지는 못했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5-7 역전패를 당했다. KIA는 앞선 22일 경기에서 3개의 홈런으로 9-4 승리를 만들며 최근 6연패, 삼성전 3연패 그리고 주말 13연패에서 탈출했지만 연승에는 실패했다.

전날 프로 데뷔 홈런을 날렸던 이진영이 이를 연속 담장을 넘겼지만, 뒷심싸움에서 밀렸다. 선발 김유신은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한 뒤 5-1로 앞선 상황에서 내려왔지만, 프로 첫 승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KIA가 1회 선취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선빈의 볼넷과 이정훈의 좌중간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3루에서 황대인의 희생플라이가 나왔다.

터커의 우전안타로 시작한 2회에는 이진영이 이승민을 상대로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3-0을 만들었다. 2016년 프로에 데뷔해 전날 처음 그라운드를 돌았던 이진영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이었다.

KIA는 4회에는 2사에서 나온 박찬호의 안타와 최원준의 우측 2루타로 4-0을 만들었다.

5회에도 득점 행진이 이어졌지만, 추가 득점이 아쉬웠다.

이정훈의 볼넷으로 연 5회. 황대인의 안타성 타구가 박해민의 슬라이딩 캐치에 잡히면서 아쉽게 아웃카운트가 올라갔다. 삼성 마운드가 이승현으로 교체됐고 김태진의 볼넷과 터커의 우전안타가 이어지면서 1사 만루가 됐다.

하지만 '홈런타자' 이진영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한승택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어렵게 1점을 보냈지만 박찬호의 삼진으로 더는 점수를 얻지 못



2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 5회 말 KIA 선발 투수 김유신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김유신이 84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하면서 KIA도 6회부터 볼넷이 가동됐다.

일찍 출격한 장현식이 6회를 7개의 공으로 삼자 범퇴로 막았지만 아쉬운 볼넷으로 7회를 시작했다.

이원석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김현곤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1사 1-2루가 됐다. 대타 오재일을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한 숨을 돌리는 것 같았지만 김지찬에게 좌전안타를 맞으면서 베이스가 가득했다.

1사 만루에서 고졸 투키 장민기가 투입됐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박해민에게 던진 슬라이더가 우측 담장을 살짝 넘어가면서 역전 만루포가 기록됐다. 박해민은 호수비에 이어 만루포로 KIA를 울렸다.

5-6이 된 8회초, KIA가 무사 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렸다.

최원준이 선두타자로 나와 우중간을 가르며 2루까지 향했지만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김선빈의 땅볼에 이어 이정훈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1-3루, 대타 김민식의 타구가 멀리 뻗지 못하고 3루수에게 잡혔다. 김태진은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소독 없이 8회가 끝났다.

이어진 8회말 이승재가 1사 2루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만루 위기를 자초한 뒤 오재일의 희생플라이로 1실점을 하면서 점수는 5-7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한승택의 안타로 2사 1루는 만들었지만 박찬호의 중견수 플라이로 경기가 끝나면서, KIA의 패배와 오승환의 시즌 14번째 세이브가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수원에 3-4 역전패
K리그1 최하위

3개의 페널티킥 골 포함 7골이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터졌다. 아쉽게도 골 전쟁의 승자는 수원 삼성이었다.

광주FC가 2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021 18라운드 홈경기에서 3-4 역전패를 당했다.

전반 1분 엄원상이 오른쪽에서 골대 정면에 있던 헤이스에게 패스했지만 공이 빨랐다. 슈팅 찬스를 놓친 헤이스가 5분 뒤 골장면을 연출했다.

헤이스가 코너킥 키퍼로 나서 띄운 공이 수비수 맞고 한희훈 앞으로 향했다. 공을 잡은 한희훈이 방향을 바꿔 왼발로 슈팅을 날리며 골대 오른쪽을 갈랐다.

수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15분 드로잉 공격에서 수원 정삼빈이 머리로 공을 떨구었고, 송승민이 걷어내지 못하면서 김민우 앞으로 공이 향했다. 김민우는 왼발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1-1로 전반전이 끝난 뒤 후반 두 팀이 페널티킥으로 골을 주고받았다.

후반 2분 페널티 지역에서 김민우와 공을 다투던 광주 송승민의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그리고 수원 제리치가 키퍼로 나서 골을 기록했다.

후반 12분 이변에는 광주 헤이스가 키퍼로 섰다. 앞선 광주 공격 상황에서 엄지성이 골키퍼 양행모에 잡혀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헤이스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애타게 기다리던 K리그 데뷔골을 신고했다.

이후 광주가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지만 마음 같지 않았다.

후반 17분 김종우의 크로스를 받은 한희훈의 헤더가 아쉽게 골키퍼에 막혔고, 후반 23분에는 오히려 수원 이기제의 슈팅에 가슴을 쓸어내렸

다. 프리킥 상황에서 이기제가 직접 슈팅이 나섰고, 골키퍼 윤보상이 뛰어올라 공을 막아냈다.

이후 몇 차례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가 후반 38분 아쉬운 실점 장면을 연출했다.

광주 수비진 사이에 있던 김건희가 김태환의 드로잉을 받아 텀샷으로 광주의 골대를 뚫었다.

하지만 그대로 경기가 끝나지는 않았다. 후반 막판 광주가 웃다가 웃었다.

후반 45분 이한도가 페널티지역에서 공중볼을 다투다가 수원 헨리에 다리를 밟았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김중우가 키퍼로 나서 다시 경기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경기 종료로 앞두고 광주의 페널티지역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이한도의 파울이 선언됐다.

수원 이기제가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으로 골대를 가르며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

전남드래곤즈도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K리그2 13라운드 홈경기에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반 17분 발로텔리가 울다가 웃었다. 김현욱의 전진패스를 받은 발로텔리의 왼발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비껴났다.

하지만 공수전환 과정에서 전남이 골키퍼의 골킥을 받아 공격을 재개했다.

뒤에서 넘어온 공을 머리로 떨궈 이종호에게 넘긴 발로텔리가 다시 공을 받아 골키퍼 마주하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장식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 이레준의 패스를 받은 부산 박정인의 헤더가 전남의 골망을 흔들면서 1-1로 전반전이 끝났다.

경기는 전남의 패배로 마무리 됐다. 후반 17분 부산 안병준이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이 나섰고, 왼쪽에서 길게 날아온 공이 그대로 전남 골대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전남은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3연승에 실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에이스' 윤석민의 마지막 등판



30일 챔스필드서 지각 은퇴식
선수단 등번호 21번 패치 부착

KIA 타이거즈 '에이스' 윤석민이 마지막으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른다.

KIA가 오는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윤석민의 은퇴식 연다.

은퇴식은 타이거즈를 위해 헌신한 윤석민을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IA의 에이스, 언터처블 윤석민'을 주제로 진행된다.

팀 마운드의 중심 역할을 했던 '에이스'의 활약을 돌아보는 이번 행사는 윤석민의 시구와 함께 시작된다.

은퇴 경기 없이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던 윤석민은 이날 마운드에서 마지막 투구를 하면서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작별인사를 전한다.

이날 선수단은 윤석민의 현역시절 등 번호 21번이 담긴 은퇴 기념 패치를 모자에 부착한다. 동료와 선-후배가 윤석민을 대신해 마지막 경기를 뒀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모든 좌석의 입장권은 윤석민 배변에 맞춰 21% 할인해 판매된다. 입장 관중에게는 '기아의 에이스, 언터처블 윤석민'이 적힌 노란 손수건을 나눠준다.

본격적인 은퇴식은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다. 윤석민의 활약상과 윤석민이 팬들에게 직접 전하는 감사 인사 영상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동판으로 특별 제작된 마운드 플레이트와 골든 글러브, 유니폼 액자, 선수단 기념패 등 기념품 전달도 진행된다. 이날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윤석민의 기부품 전달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민의 고별사에 이어 유니폼 반납식, 선수단 행기레 등을 통해 팬들은 선수 윤석민과 작별하게 된다.

윤석민은 "그동안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으로 타이거즈 선수로서 자부심을 갖고 던질 수 있었다"며 "KIA라는 팀이었기에 좋은 환경과 좋은 지도 속에 이만큼의 투수가 될 수 있었다. 그라운드에서 함께 해준 동료들, 감독님, 코치님들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2차 1라운드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윤석민은 KBO 통산 12시즌 동안 398경기에서 나와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77승(75패) 86세이브 18홀드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했다.

2011시즌에는 2.45의 평균자책점으로 17승(5패) 1세이브 178탈삼진 그리고 승률 0.773를 기록하며 투수 4관왕(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에 등극했다.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 4개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KBO 역사상 '국보' 선동열 전 감독과 윤석민뿐이다.

윤석민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금메달),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준우승),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금메달) 등 국제대회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맹활약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민지가 23일 강원 춘천 라테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골프 '박민지 천하'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시즌 6개 대회서 3승 '절대 강자'

박민지(23)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절대 강자'로 우뚝 설 조짐이다.

박민지는 23일 강원도 춘천시 라테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2억원) 결승전에서 박주영(31)을 3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달 25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에

이어 지난 16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박민지는 시즌 3승 고지에 올랐다.

이번 시즌 6차례 대회에서 절반을 우승한 셈이다. 게다가 2주 연속 우승이다. 통산 7승.

우승 상금 2억 원을 받은 박민지는 상금랭킹 1위(4억8604만원)를 굳게 지켰다. 박민지는 2018년부터 4시즌 연속 시즌 상금 4억원을 넘겼다.

특히 앞선 2차례 대회에서 딱 한 번 16강에 올랐던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7개 매치를 모조리 승리하며 '매치 킨'에 올라 강인한 승부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오전 준결승전에서 지한솔(25)을 2홀 차로 제친 박민지는 투어 12년 차 박주영을 맞아 힘겨운 경기를 했다.

박민지가 달아나면 박주영이 따라붙고, 박주영이 따라붙으면 박민지가 달아나는 접전을 벌였다. 4홀씩 주고받아 팽팽하게 이어지던 승부는 박민지가 15번 홀(파4)에서 6m 버디를 꽂아 넣고 16번 홀(파3)에서 3퍼트 보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기울었다.

박민지는 17번 홀(파4)에서 1.2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